건강과 수행

궤양성 대장염

만성염증을 일으키는 자가면역질환

한 지인이 최근 심한 복통과 잦은 설사로 불편함을 겪었다. 평소에도 스트레스성 장염을 자주 앓아왔던 터라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고 용변에서 피가 섞여 나오는 증상이 발생했다. 불안함에 결국 병원을 찾은 그는 '궤양성 대장염'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궤양성 대장염'은 대장(결장)에 염증이 생기고 궤양이 생기는 염증성 장질환으로 다른 말로는 '장결장염'이라고도 한다. 이는 대장(결장)에 염증이 생기고 궤양이 생겨서(오목해지거나 마모됨) 혈액성 설사, 복부 경련 및 열이 재발(발병 또는 공격)하게 되는 염증성 장질환이다.

원인

궤양성 대장염의 원인은 아직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대장균, 대장벽의 면역학적 이상, 유전적인 요소가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불규칙하고 자극적인 식습관, 카페인 섭취, 스트레스 등과 관련된다고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서구화되는 생활 습관으로 인해 발병 빈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증상

궤양성 대장염의 증상으로는 혈액과 점액을 함유한 묽은 변 또는 설사, 심한 복통, 탈수, 빈혈, 열, 체중 감소 등이 있다. 우리 몸은 대장에서 흡수하지 못하게 되면 설사가 발생하며, 궤양성 대장염이 대장을 많이 침범할수록 설사의 정도도 심해진다. 하루에 10회 이상 설사를 하기도 하며 변실금(자신의 의지대로 변을 조절할 수 없는 상태)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피와 점액이 섞인 무른 변이나 피고름 같은 변이 나온다.

궤양성 대장염에서 병적인 변화는 항문에 인접한 직장에서 시작하여 점차 안쪽으로 진행한다. 병적인 변화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지 않고 모두 연결되는 특징이 있다. 거의 모든 궤양성 대장염 환자는 직장에 염증이 있다. 절반 정도의 환자는 직장부터 S상 결장까지, 1/4 정도의 환자는 직장부터 S상 결장과 왼쪽 대장까지, 나머지 1/4 정도의 환자는 직장부터 횡행 결장 또는 오른쪽 대장까지 대장 전체에 걸쳐 염증이 있다. 그러나 항문 주위의 질환은 거의 동반되지 않는다.

대장 증상 외에 말초 부위 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궤양성 대장염을 겪은 환자는 대부분 발병 1년 안에 재발을 겪을 정도로 재발할 가능성이 큰 질환이다.

궤양성 대장염과 비슷한 증상으로 '과민성장증후군'이 있는데 증상만 봐서는 비슷하지만 두 질환은 엄연히 다르다. 궤양성 대장염은 우리 몸이 장내 세균을 포함한 외부 자극에 대해 과도한 면역반응을 보이면서 엉뚱하게 자신의 장 점막을 공격, 만성염증을 일으키는 자가면역질환인 반면, 과민성장증후군은 소장이나 대장의 운동이 비정상이거나 감각기능이 지나치게 예민한 경우 발생하는 질병으로 심리적인 압박감이나 환경변화 등에 의한 스트레스가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두 질환 모두 복통과 설사가 나타나지만 점액이 섞인 혈변을 보는 것이 궤양성 대장염만의 특징이다.

궤양성 대장염은 대부분 증상의 악화와 호전이 반복되며 때로는 상당히 오랜 기간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직장에만 병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궤양성 대장염은 병의 경과 및 치료 결과도 비교적 좋다. 따라서 약물 치료만으로도 호전될 수 있다. 그러나 직장 이상의 부위로 번진 경우에는 추후 대장암으로 진행되기도 한다. 약물 치료를 하더라도 계속 재발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궤양성 대장염을 진단받은 경우라면 각별히 신경을 써서 재발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하겠다.*

이승우 기자

한국의 보물, 해인〈42〉

제3부 해인신앙의 전개과정과 종교적 의의

흥선대원군과 정만인

해인설화에 등장하는 해인을 도둑질해 갔다는 정만인이라는 인물은 과연 누구인가? 해인에 대한 신앙과 정만인에 관한 이야기가 최소한 20세기 초에는 민간에 상당히 유포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다음의 기록을 통해 확인된다.

대원군이 음양풍수설을 신봉하여 … 또 참언이 있었는데 "만인에게 패할 것이다."라 했다. 대원군이 이를 마음속으로 두려워하여 비밀리에 조심했다. 합천 해인사에 있던 만인(萬忍)이라는 스님이 절 안에 있는 대장경 판본 전부를 수선하고 싶다고 말하자, 대원군이 수 만금을 주었는데 만인이 그 돈을 가지고 도망쳐버렸다.

사람들이 (참언이) 기묘하게 맞았다고 했다. 혹자는 (참언에) "만인을 살해하면 평안해질 것이다."라고 했는데, 대원군을 이를 믿어 크게 살육을 일으켜 만 명을 채웠고(천주교 신도를 학살한 것이 만 명에 이르렀다.)

… 세간에 전하는 이야기에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해인사에 소장한 대장경 판본 가운데에 해인(海印)이 있는 까닭에 해인을 절 이름으로 삼았는데, 대개 해인은 실로 천하에 비할 바가 없는 지극한 보물이다. 만인이라는 스님은 본래 일본사람인데, 대원군에게 대장경 판본을 수선하겠노라고 청탁하고는 해인을 훔쳐 일본으로 도망쳤다. 대원군이 만인이라는 중을 죽이지 못하고 무고한 만 명의 목숨을 억울하게 죽여 참언에 부응하고자 했으니, 대개 만인(萬人)과 만인(萬忍)은 음이 같기 때문에 그 같이 오해했다. 운운. …

… 大院君이 信陰陽風水之說하야 … 又有讖曰, 敗於萬人이라. 大院君心患之하야 密注意焉이러니, 陜川 海印寺에 有僧名萬忍이 說大院君欲修繕寺中所藏大藏經(板本)全部하야, 大院君與數萬金하니 萬忍攫之而逃하니 人爲奇應이라. 或有言者 - 殺萬人乃安이라 하니, 大院君信之하야 遂大行殺戮하야 以充萬數하고 (虐殺天主教信徒殆萬數) … 〈俗間傳說〉云, 海印寺所藏大藏經板本中에 藏有海印故로 寺以海印名이라 하니, 盖海印은 實天下無雙之至寶라. 僧萬忍은 本日本人이니 說大院君하야 託以修繕藏經板本하고 盜海印以逃往日本이라. 大院君不能殺僧萬忍, 而枉殺無辜之萬人之命하야 欲以應讖하니 盖萬人與萬忍音同故로 誤解如是云云이라. … 이능화, 「풍수사상고(風水思想考)」 칠(七), 『조선(朝鮮)』 160호(1931년 2월호)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 이하응(李昰應, 1820 - 1898)이 비결을 깊이 신봉한 나머지 해인사의 만인이라는 스님에게 속아 넘어갔다는 이야기가 널리 전해졌고, 나아가 대원군이 비결을 잘못 해석하는 바람에 무고한 천주교인들을 학살하여 천추의 한을 남기게 했다는 이야기가 유포되었다.

또 정만인이라는 스님은 본래 일본인이며 그가 해인사의 팔만대장경 속에 깊이 감춰져 있던 보물인 해인을 가지고 일본으로 도망쳐버렸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국운(國運)이 위태롭게 되었다는 소문이 떠돌 정도였다.

이러한 이야기가 적어도 1930년대 초에는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유행하고 있었음이 확인되었고, 따라서 해인설화에 나오는 정만인이라는 인물에 관한 이야기가 전혀 근거가 없는 일을 서술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밝혀졌다. 설화에 등장하는 주요한 화소(話素)는 항상 특정한 사실에 바탕을 두고 구성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위의 기록에 대해 당시 이 이야기를 소개한 이능화(李能和, 1869 - 1943)는 자신의 의견을 세주(細註)로 아래와 같이 밝혔다.

절 이름이 해인인 것은 『화엄경』의 해인삼매에서 뜻을 취한 것이요, 실물이 있는 것이 아니다. 신라 애장왕 3년 해인사를 창건할 때 순응과 이정 두 대사가 주관했는데, 순응과 이정은 화엄종 계보에 속하는 승려였다. (그들은) 의상대사의 계통이었기 때문에 네모난 1촌 크기 정도의 수정 도장을 이용하여 의상대사께서 찬술하신 법성게를 새겨, 법손(法孫)에게 전수하여 선종의 의발을 전수하는 것처럼 신표로 삼았다. 세속에서 이것을 불가(佛家)의 보물이라고 말하는데, 이 도장이 있으면 바닷물도 말려버릴 수 있다는 등의 말을 한다. 이는 모두 동쪽 촌사람의 말이라, 본래 한 바탕 웃음거리일 뿐이다. 세상 사람들의 미신이 애석할 따름이다.

寺名海印是取義於華嚴經之海印三昧者也오. 并非有實物也라. 按新羅哀莊王三年, 創海印寺, 而順應 · 利貞二大師, 實主之하니 順應 · 利貞은 係是華嚴宗僧, 而爲義相大師系統故로 用水晶印方寸許者하야 刻義相大師撰述之法性戒하야 傳其法孫하야 若禪宗之傳衣鉢爲信者也라. 俗乃以此謂佛家寶物하야 若以印雖洋海可立乾云云하니 是皆齊東野人之說이라. 本不値一笑, 而世人迷信은 可哀也已로다.

이능화는 해인은 『화엄경』의 해인삼매(海印三昧)에서 나온 용어이므로 결코 실재하는 물건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인사를 창건한 스님들이 의상대사의 「법계도」를 수정으로 만든 도장에 새겨서 선종(禪宗)에서 의발(衣鉢)을 전하는 것처럼 신표로 삼았을 뿐인데, 이것을 민간에서 오인하여 불가(佛家)의 보물이라고 믿어버렸던 미신에 불과하다고 해인신앙의 본질을 파악하였다. 필자는 이능화의 이러한 관점이 탁월한 견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필자는 이능화의 의견이 가지는 맥락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해인이라는 실물이 실제로 있다고 믿어왔던 별도의 해인신앙도 분명히 존재했었고 나름대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글에서 필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은 해인이 실물이냐 실물이 아니냐 하는 논쟁에 휘말리는 것이 아니라, 해인이라는 보물에 관한 신앙이 한국 종교사에서 어떻게 형성되고 전개되었는지를 알아보고 그 종교적 의미를 고찰하는 일이다.

이 밖에도 윤효정(尹孝定, 1858 - 1939)의 『한말비사(韓末秘史)』(1946)에 대원군과 정만인에 대한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한다.

… 〈오인만인(誤認萬人)〉 흥선시대(興宣時代)에 교유(交遊)하든 일산승(一山僧)이 있으니, 성자(姓者)는 정만인(鄭萬人)이라. 미래(未來)의 길흉화복(吉凶禍福)을 체년계월(遞年計月)하야 명료히 감정하더니, 갑자(甲子) 이후에 이것을 증험(證驗)한즉 제이자(第二子)가 계해(癸亥) 12월 13일에 국왕(國王)이 되신다는 말이 약합부절(若合符節)이라. … 정만인(鄭萬人)이 내견(來見)하거늘 … 만인(萬人)이 사사왈(謝辭曰) 감사하오나 부귀(富貴)는 산승(山僧)에 부당한 것이오니, 다만 합천(陜川) 해인사(海印寺)에 잇는 팔만대장경을 인쇄할만한 권력(權力)을 부여하시면 족하오이다.

대원군은 즉시 종무부(宗務府) 공문을 해인사 주지에게 부치고 인쇄 감독은 정만인으로 하였다. 정(鄭)이 해인사에 가니 … 여하(如何)한 사(事)라도 자유(自由) 여의(如意)한 지라. 대장경기질(大藏經幾秩)을 인출(印出)하고 장경고(藏經庫)에 비장(秘藏)하였든 해인(海印)을 절취(竊取)하여 가지고, 운학(雲鶴)의 종적이 묘연하였다.

속전(俗傳)하되 이 해인(海印)의 조화(造化)는 소위 불가사의(不可思議)라. 인영(印影)이 일조처(一照處)에는 산복해번(山覆海翻)과 풍운뇌정(風雲雷霆)이 유의시종(惟意是從)하야, 후일(後日)에 대용처(大用處)가 유(有)하다는 허탄불경지설(虛誕不經之說)을 미신하는 자가 유(有)하다 운운(云云)하고, 대원군 갑자(甲子) 이전(以前)에 당술자(唐術者)가 평왈(評曰) 살만인(殺萬人)이라야 부귀평생(富貴平生)이라 하였으나, 만인(萬人)을 살(殺)할 기회가 없더니 천주교도(天主教徒)가 속속 출현하는 것을 인하야 … 날마다 수백 명씩 교살(絞殺)하야 수구문(水口門) 성외(城外)에 버리니 … 만인(萬人)의 수(數)가 넘게 된 뒤에 생각하니 이것이 정만인(鄭萬人)을 죽이라는 것을 오해한 것이라 하고, 국중(國中)에 대색(大索)하야 정만인을 잡으려 하다가 구지부득(求之不得)하였다 한다. …

『한말비사』는 원래 「동아일보」에 1931년 2월 17일부터 5월 22일까지 총 42회에 걸쳐 연재한 내용을 묶은 책이다. 따라서 대원군과 정만인에 얽힌 일화는 1931년 이전의 시점에 민간에 널리 알려졌던 이야기다.

위 이야기의 전체적인 맥락은 앞에서 살펴본 이능화의 전언 내용과 유사하다. 다만 정만인이 대원군의 둘째 아들이 왕위에 오를 것을 정확히 예언했던 인물이라는 점이 삽입되었다. 그리고 대원군이 천주교인을 박해한 일이 비결을 잘못 풀이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덧붙여서 신빙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는 해인에 대한 신비성을 증가시키고 그 신통력이 신뢰할만하다는 기대효과를 높이게 한다.

한편 박제형(朴齊炯, ? - 1884)의 『근세조선정감(近世朝鮮政鑑)』(1886)에 대원군이 해인사 승려 만인(萬忍)에게 속아 수만금을 사기당했다는 이야기와 "만인을 죽여야 편하게 된다."라는 비기(秘記)를 믿은 대원군이 사람들을 살육하여 만(萬)이라는 숫자를 채웠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해인과 관련된 이야기는 언급되지 않는다.*

김탁 박사 / 신종교 연구가

목차

1. 선불가진수어록(仙佛家眞修語錄)
2. 진삼귀의처품(眞三歸依處品)
3. 무아경지품(無我境地品)
4. 여래비장품(如來祕藏品)
5. 겁수품(劫數品)
6. 감로해인품(甘露海印品)
7. 선지식품(善知識品)
8. 여래출현품(如來出現品)
9. 여래능력품(如來能力品)
10. 불법근본품(佛法根本品)

부처님께서 열반에 들어 말씀하시기를《14회》

∴_()_

5. 겁수품(劫數品)

… 한 비구(比丘)가 있어서 세존(世尊)께 묻기를, 겁(劫)에 한계(限界)가 있습니까 하니 …

(지난호에 이어서)

〈증일아함경 권 48 (增一阿含經 卷四十八)〉

劫有二棕 小劫大劫
겁유이종 소겁대겁

겁(劫)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소겁과 대겁이다.

辟支佛出現時小劫 彌勒如來出現時爲大劫 벽지불출현시소겁 미륵여래출현시위대겁

벽지불이 출현할 때를 소겁이라 하고 미륵여래께서 출현하실 때는 대겁이 된다.

벽지불이라 함은 부처는 부처로되 여래보다는 한 차원 아래라고 할 수 있다. 벽지불 출현시를 소겁이라 하고 미륵여래 출현시를 대겁이라 하였으니, 미래불(未來佛)인 미륵여래가 나오기 전에는 석가세존 자신을 포함해서 모두 다 벽지불에 속한다는 말이다.

比丘當以方便知 劫數長遠 不可稱計 此劫數之意 비구당이방편지 겁수장원 불가칭계 차겁수지의

비구야, 마땅히 방편(方便)인 줄 알아라. 겁의 수는 길고 멀어 바로 계산하여 말할 수 없지만, 이것이 겁수의 뜻이니라.

그러므로 겁이라 함은 그 시간의 길고 짧음에 뜻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는 석가세존이 미륵부처님의 출현을 알리기 위해서 방편으로 사용한 미묘한 베일에 싸인 인봉(印封)했던 단어인 것이다.

佛在羅閱城 耆闍崛山時
불재나열성 기사굴산시

부처님께서 나열성 기사굴산에 계실 때에

有一比丘白世尊言 劫頗有邊際乎
유일비구백세존언 겁파유변제호

한 비구가 있어 세존께 묻기를, 겁에 한계가 있습니까 하니,

佛告比丘 方便引譬
불고비구 방편인비

세존께서 비구에게 방편으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기를

겁에 대하여 하도 말이 많으니 겁이라는 것에 한계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묻고 있다. 그러자 세존은 비구의 질문에 대해 곧바로 대답하지 아니하고 그분 특유의 장광설(長廣說)로 길게 비유를 들어 설하기를

此賢劫中 俱樓孫佛出現時 此城人民 此山頂上 行四日間 차현겁중 구루손불출현시 차성인민 차산정상 행사일간

이 현겁(賢劫) 가운데 구루손불이 출현했을 때에는 이 성의 인민들이 이 산정상(頂上)에 와서 4일간 있다가 가고

拘留含牟尼佛出現時 三日間 迦葉佛時 二日間 구류함모니불출현시 삼일간 가섭불시 이일간

구류함모니불이 출현했을 때에는 3일간 있다가 가고 가섭불이 출현했을 때에는 2일간 있다가 가고

現在時 須臾間 人民行居
현재시 수유간 인민행거

현재 내가 출현했을 때에는 인민들이 잠깐 왔다가 간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현겁이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현겁이라고 했다. 구루손불은 현겁 중에 석가세존보다 훨씬 이전에 출현했던 부처를 말하는데 가공(迦空)의 인물로 보여진다. 아무튼 구루손불이 출현하니 기사굴산에 이 성 사람들이 4일간 왔다 갔다는 것이다.

여기서 산(山)은 이 세상 사바세계(娑婆世界)를 말하며 인민들은 중생들을 뜻한다. 인민들이 4일간 있다가 갔다는 것은 이 중생들이 세상이 4소겁(小劫)쯤 남았다는 것이다. 아직도 태양(부처를 상징함)이 네 번은 더 떠올라야 한다. 구류함모니불 때에는 3일간 있다가 갔다. 이것은 이 사바세계가 3소겁 남았다는 뜻이다. 아직 부처가 세 번 더 나타나야 한다.

그다음 가섭불 때에는 2일간 왔다 갔으니 2소겁 남았으며, 현재 석가모니불 때에는 잠깐 왔다 갔으니 이제는 잠깐밖에 안 남았다는 말이다. 이제 머지않아 사바세계가 끝난다는 말이다.

若彌勒如來 出現於世
약미륵여래 출현어세

만약 미륵여래께서 세상에 출현할 때에는

亦此山 諸佛神力 咸使出此山在 역차산 제불신력 함사출차산재

역시 이 산으로 오는데 모든 부처의 신력(神力)이 모두 이 산에 와서 머물러 있느니라.

미륵여래께서 나타나시니 다른 때와는 비교가 안되는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다. 미륵여래께서 출현하시니 역시 이 산, 즉 이 사바세계로 오시는데 이 세상 인민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부처님들의 신력(神力)이 모인다고 했다. 부처님들이 모인다는 것은 미륵부처님 시대에 와서는 모든 중생이 해탈하여 이 세상 자체가 극락세계로 이루어질 것을 뜻한다.

(계속)*